

대학생의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 검사의 개발

정 민[†] 노 안 영

전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하고 기존 척도들의 문항을 추가하여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세 개 요인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 척도는 결정 및 현실성, 실천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확신 5개의 요인, 이성교제 척도는 만족도 및 친밀성, 이성불안 2개의 요인, 대인관계 척도는 만족도 및 적극성, 대인불안, 친밀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척도에 대한 요인 구조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생활양식 검사도구와의 상관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생활양식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시사점과 제한점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생활양식 검사, 인생과제,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 교신저자 : 정 민, 전남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E-mail : saiyoenj@hanmail.net, Tel : 062-530-1111

개인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양식에 주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개인의 현실적 지각 등이 이러한 생활양식을 통해 표현되므로 그 사람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적응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방향을 예측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보았다(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2001). 따라서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심리학자들은 심리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내담자로부터 얻기 위해 생활양식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Kern, Wheeler, & Curlette, 1993). 생활양식 검사 중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Kern, Wheeler, Curlette(1993)의 BASIS-A(Basis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는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격 변인을 측정한다. 즉, BASIS-A 검사 목적은 자신의 지각, 초기 어린 시절 경험들에 대한 신념에 근거해서 각 개인의 생활양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과제인 일과 사회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관련해서 개인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들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경순(1996)은 중학생의 생활양식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정민과 노안영(2002)은 아들러가 주장했던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생활양식을 분류하였으며, 또한 Kern의 생활양식(노안영, 정민, 2003), BASIS-A(정민, 2004) 검사를 번안하여 소

개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검사를 모태로 하여 번안 표준화한 것들을 한국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민(2004)은 대표적인 생활양식 척도인 BASIS-A를 번안하여 사용한 결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 a 가 원척도의 0.82에서 0.87에 비해 0.60에서 0.79로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Kern, Wheeler, Curlette(1993)가 사용했던 요인분석 방식을 사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해보았으나 원척도의 열개 요인에 비해 더 적은 여덟 개의 요인이 나타남을 발견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연구자가 번안하는 과정에서 보인 오류 때문일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생활양식검사 제작에서 사용한 언어가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번안하여 제작된 생활양식검사들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개인들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문항을 번안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론과 잘 맞지 않는 이론적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 언어로 된 생활양식 특성묘사 문항들을 수집하여 문항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개발을 위해 생활양식의 배경과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양식이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을 말하며, 개인의 존재를 특징짓는 주제로 생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조현춘, 조현재, 1996). 이러한 개념들은 후에 개인심리학에서 개인의 성격 기능이 자신의 생활양식이라는 관점으로 개념화된다. Mosak(1971)에 의하면 인생과제에 대한 요구와 도전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드러나게 한다. 즉, 인생과제인 일,

우정, 사랑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서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이 생활양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생활양식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차이에 근거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네 가지 유형론을 제안했다. 아들러의 생활양식은 일체감, 공감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심과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에너지 수준인 활동 수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활동형, 기생형, 회피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분류한 생활양식은 너무 단순해서 생활양식과 적응을 잘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생활양식 유형들과 적응·부적응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정민, 노안영, 2002). 그 후 Mosak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양식과 Kefir의 성격우위(personality priorities)를 중심으로 성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Mosak은 일반적으로 관찰된 생활양식과 관련해서 가능한 행동 유형 즉, 획득형, 추동형, 통제형, 반대형, 희생형, 순교자형, 유아형, 무능력형, 합리형, 흥미 추구형 등 10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유형은 개인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생활양식의 설명 요인들로 해석된다. 때문에 생활양식 주제들을 조합해서 전반적인 생활양식 유형을 특징짓는다(Mosak, 1971). Mosak의 생활양식은 그 후 Wheeler, Kern과 Curlette(1986) 등에 의해 연구가 가속화되어 아들러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 근거해서 LSPI(Life Style Personality Inventory)로 재탄생되었다. LSPI는 Mosak의 유형론과 아들러의 생활양식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양식과 사회적 관심

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인관계 성공을 위한 아들러의 기본 검사(Basic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Adult Form; BASIS-A)가 Kern, Wheeler와 Curlette(1993)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일반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기회상 및 인생과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인 소속·사회적 관심 갖기, 전진하기, 주도권 잡기,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의 다섯 가지 생활양식 성격 또는 인지적 스키마를 측정한다. 여기에 생활양식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침, 권리 갖기, 모든 것에 의해서 연결된, 완벽함에 대한 갈망, 부드러움의 HELPs(Harshness, Entitlement, Liked by all, striving for Perfection, Softness)로 언급되는 다섯 가지 하위 검사가 추가된다. 이와 같이 발달된 생활양식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Wheeler(1989)는 다양한 생활양식 분류 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양식 주제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주제들은 순응과 의존, 타인과 자신에 대한 통제, 위축과 타인에 대한 회피, 타인으로부터 기쁨과 위로를 받고 추구함, 타인에 대한 우월성의 추구이다.

생활양식은 내담자의 초기회상, 가족구조, 인생과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Powers & Griffith, 1987).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한다면 보다 명확한 생활양식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BASIS-A, KLS(Kern's Lifestyle Scale) 등 선행 생활양식 검사의 주요한 주제인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양식 검사 내용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아들러는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들러에 의하면 세 가지 인생과제에 대한 대처 방식은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세 가지 인생과제는 개인의 미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자신에 대한 심리적 이해 정도를 보여준다(Kern, Wheeler & Curlette, 1993). 세 가지 인생 과제는 직업, 사회, 사랑이다(노안영, 오익수, 2000). 위의 세 가지 인생 과제는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주요한 과업이기도 하다(고형일, 노승미, 2004;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종환, 1983; 김기정, 이정희,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의 주요한 인생과제를 생활양식 하위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생활양식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가 있다. 진로란 직업의 상위 개념으로 직업에서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진로발달은 전 생애를 통해 일어난다. 취업을 준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진로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어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박수길, 2001). 진로결정의 문제는 학교교육을 마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또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업성취는 물론이고 직업만족, 직업 안정성 등에서도 문제를 보인다(Gottfredson, 1981). Lunneborg (1978)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진로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유부단한 상태는 직업결정이나 일상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기정체감이나 자기-환경적 정보를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봉환과 김계현(1995)은 문헌연구를 통해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 양식 및 기타 성격변인들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김현옥(198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시 개인의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의 태도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능력을 진로성숙을 재는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개념, 지능, 내·외 통제적 신념 등이 있다(김현옥, 1989). 즉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지능이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은 중고생들은 학업동기 및 성취,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소재 등 바람직한 특성들도 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희, 2002).

인생과제의 두 번째 요소인 이성교제는 어떤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미혼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이와 같은 이성교제는 우리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학생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청년기 대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주요한 발달과업이다(김혁근, 1983). Havinghurst(1961)는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에서 이성관의 확립을 중요시했다. 즉, 청년기 남녀 간에 보다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함을 지적하

였다. 김종서, 남정걸, 정지용과 이종환(1983)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설정하고 대학생에 해당하는 청년후기의 여러 발달 과업 중 사랑, 성, 결혼 등을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강조하였으며 이성 관계에 대한 바른 성숙과 효율적인 관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이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고(남재수, 윤정훈, 1974), 둘 사이의 다툼을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짝사랑, 데이트 기술의 부족 등으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등(차승희, 1993), 단순한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부진, 심리·정서적인 장애로까지 악화되기도 한다(이정호, 1992). 김계현(1995)은 대학 내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한 결과 학생들이 정신건강의 문제, 성격문제, 학업과 진로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을 상담해 오지만 이들 중 70% 정도는 이성교제 문제를 함께 가져온다고 했다. 또한 이성교제는 상호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날 경우가 많으며, 혼전 성관계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이성교제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oyd와 Gate(1985)는 이성교제 중인 관계에서 많은 양의 정서적 개입이 있을 때 관계만족이 향상되며 이성교제에서는 친밀감이 관계만족과 유지의 중요한 예언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현숙(2004)은 미혼남녀의 관계의 질이 집단소속,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의사소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즉,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점수가 높

을수록,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낮은 관여, 관계에 대한 불만족, 불확실감의 정도(파트너의 행동과 감정들을 예언할 수 없음과 파트너에 대한 지식의 부족),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부족, 파트너와 지각된 유사성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Berg & Mcquinn, 1986; 김주연, 2001에서 재인용).

인생과제의 세 번째 요인인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형득, 1983). 한 인간으로 생존하고, 정체감을 확립하며, 건강한 성격발달을 위하여 우리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때문에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타인과 깊고 오랜 관계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타인과 연합을 통한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아들러는 주장했다(노안영 외, 2001). 또한 만약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결코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며 유용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Dreikurs(1953)는 이러한 인생과제를 사회적 관계라고 명명했으며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이라고 명명했다. 대인관계는 특히 대학생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연습기간이 없으며,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한 겸양과 인내의 미덕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행동 특성은 성격적 부적응 즉 정신·신경증적 증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황경옥(200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책임적 대인관계성향이 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인미(1984)는 고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높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치료 시 치료적 동맹을 손상시키거나 어렵게 할 수 있고,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awes & Blanchard, 1993;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5). 김은정, 권정혜(198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 관계적 접근에 기초하여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부적응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집단이 우울증상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또한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1999)은 대학생들의 경우 대인불안이 자기비하, 은근성, 타인염려 등의 일상생활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대인불안으로 인해 학업과 사회생활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대인불안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나 병적 상태의 대학생이 2.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 기존 생활양식 척도의 구성요인 및 인생과제 하위 요인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자료 수집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양식을 설명할 수 있

는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를 개발하고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봄으로써 신뢰로운 검사 도구를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광주·전남 지역 3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에 대해 272명, 인생과제에 대해 150명에게 요인과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진로 검사는 먼저 문항구성을 위해 대학생 21명, 대학원생 11명, 문항분석을 위해 1차 대학생 318명(1학년 51명, 2학년 87명, 3학년 83명, 4학년 97명; 남, 208명, 여 110명), 2차 203명(1학년 40명, 2학년 30명, 3학년 70명, 4학년 63명; 남 88명, 여 117명) 3차 316명(1학년 69명, 2학년 84명, 3학년 76명, 4학년 87명; 남, 172명, 여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성교제 검사는 면담을 위해 대학생 24명, 대학원생 9명,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위해 1차 대학생 215명(1학년 91명, 2학년 48명, 3학년 45명, 4학년 31명; 남 77명, 여 138; 이성교제 경험 유 170명, 무 45명), 2차 대학생 218명(1학년 39명, 2학년 57명, 3학년 39명, 4학년 83명; 남 124명, 여 94명; 이성교제 유무 유 174명, 무 44명), 3차 대학생 333명(1학년 121명, 2학년 82명, 3학년 64명, 4학년 66명; 남 181명, 여 152명; 이성교제 유무 유 222명, 무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인관계 검사는 면접을 위해 대학생 17명, 대학원생 8명, 통계분석을 위해 1차 대학생 205명(남 88명, 여 117명; 1학년 42명, 2학년 30명, 3학년 70명, 4학년 63명), 2차 대학생

208명(남 111명, 여 97명; 1학년 62명, 2학년 46명, 3학년 26명, 4학년 74명), 3차 대학생 276명(남 193명, 여 83명; 1학년 92명, 2학년 80명, 3학년 41명, 4학년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 236명(1학년 52명, 2학년 64명, 3학년 74명, 4학년 59명; 남 141명, 여 108명) 등 조사 때마다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생활양식 검사와 BASIS-A와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225명(1학년 44명, 2학년 57명, 3학년 46명, 4학년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도구 개발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좀 더 신뢰로운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각각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따로 진행되어 생활양식 검사 도구에 대한 문항 구성이 1여년 정도 이루어졌고 진로 검사, 이성교제 검사, 대인관계 검사에 대한 문항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이 1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생활양식

생활양식에 대한 아들러의 이론을 설명한 후 ‘당신의 생활양식은?’, ‘적응적인(건강한) 생활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적응적인(건강하지 못한) 생활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의 세 가지 질문을 개방형으로 실시하였다.

인생과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목표(인생과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개방형으로 실시하였다

생활양식 검사

생활양식 검사의 하위 검사 구성을 위해 개방형 질문을 실시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을 대학원생과 함께 문항 검토를 실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4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과 관련된 진로성숙도 검사(김현옥, 1989), 진로태도 측정도구(한종철, 이기학, 1997), 진로정체감 검사(김계현, 김봉환, 1997) 합리적 신념검사(변은주, 1996), 이성관계 만족도(유소영, 2000), 대인관계 지지 평가척도(김정희, 1987),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대인관계성향 검사(안범희, 1985),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2000)에서 관련 문항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2명의 국문학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문항을 정리하여 최종 문항을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각각 57, 48, 56문항을 선정하였다.

BASIS-A(Basis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

Kern, Wheeler, Curlette(1993)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이 도구는 아들러 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생활양식 검사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요인은 소속-사회적 관심 갖기, 결정에 따르기, 주도권 잡기,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의 다섯 가지 주요한 요인과 거침, 관심받기, 연결하기, 완벽주의, 부드러운 부가적인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검사에서 신뢰도는 전체 내적 일치도 α 가 .688, 소속-사회적 관심 .742, 전진하기 .670, 주도권 잡기 .862, 기쁘게 하기 .793, 신중하기

.824, 거침 .714, 관심반기 .647, 연결하기 .697, 완벽함 추구 .611, 부드러움 .661로 나타났다.

결 과

생활양식 검사의 구성 요인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구성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생활양식, 적응적인 생활양식, 부적응적인 생활양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양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미래)을 실현 시킴, 진로, 삶에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 등의 목표지향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2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 결과, 목표지향이 21.96%, 부적응적인 생활양식에 대해서도 목표의식 기여가 1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즉 인생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 25.97%, 결혼, 가정, 자녀 20.33%, 대인관계가 9.81%로 가장 높은 세 개의 요인으로 나타나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했던 생활양식 구성요소인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세 요인을 재확인하였다.

생활양식 검사에 대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구성된 진로 57문항에 대해 상관이 3.0미만으로 낮은 문항부터 제거하면서 내적 일치도 α 를 살펴본 후 5문항을 제거하고 2차 52문항에 대해, 3차 43문항에 대해 차례로 문항을 제거하면서 내적 일치도 α 를 살펴보았다. 43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α 는 0.936을 나타냈다. 43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0.90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유치의 값이 1.00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율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의 개수가 5개로 누적 분산비율은 45.778을 나타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요인의 수를 5개로 정하여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의 Oblimin 회전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진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는 표 1과 같다.

이성교제 검사 48문항에 대해 상관이 3.0미만으로 낮은 문항부터 제거하면서 내적 일치도 α 를 살펴본 후 13문항을 제거하고 2차 35문항, 3차 33문항에 대해 차례로 문항을 제거하면서 내적 일치도 α 를 살펴보았다. 28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α 는 0.902이다. 28문항 중 8번과 9번 문항의 내용이 유사하고 두 문항간의 상관도 0.717로 높게 나타나 전체 총합과의 신뢰도가 조금 더 낮은 8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3번과 4번 문항은 2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리되므로 두 문항을 제외하고 25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0.87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유치의 값이 1.00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율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의 개수가 6개로 누적 분산비율은 63.707을 나타냈다. Scree Plot, 고유치, 요인별 문항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요인의 수를 2개로 정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 Oblimin 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이

표 1. 진로 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공통 분산
		1	2	3	4	5	
1	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다.	.481	.232	.133	.190	.171	.252
2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663	.204	.185	.379	.322	.475
3	직업에 대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내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449	.162	.044	.406	.152	.250
4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465	.253	.250	.340	.127	.260
5	취업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542	.273	.298	.332	-.020	.385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645	.268	.319	.487	.161	.487
7	나의 진로 목표는 내 현실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474	.157	-.051	.327	.163	.270
8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직업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494	.048	.045	.360	.136	.270
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자주 바뀐다.	.469	.096	.006	.412	.312	.318
10	나에게 호감을 주는 직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702	.290	.228	.378	.335	.532
11	장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713	.281	.273	.464	.221	.540
12	나의 미래 모습을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660	.228	.254	.438	.135	.467
13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707	.280	.315	.509	.233	.559
1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292	.740	.441	.218	.282	.567
15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17	.698	.232	.126	.265	.515
16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매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	.258	.822	.372	.147	.185	.683
17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302	.869	.370	.209	.308	.766
18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155	.660	.489	.157	.193	.479
19	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8	.812	.535	.203	.251	.688
20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	.104	.591	.525	.100	.191	.431
2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387	.464	.624	.258	.249	.485
22	나의 관심거리를 살려서 직업과 연결시키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351	.501	.692	.228	.190	.559
23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314	.509	.705	.167	.172	.568
24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177	.460	.608	.139	.377	.440
2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090	.434	.533	.140	.526	.465
26	나의 적성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231	.382	.673	.261	.432	.528
27	현재 우리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직업을 신중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060	.378	.585	.024	.223	.366
28	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187	.407	.721	.183	.428	.575
29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79	.418	.652	.291	.222	.474
30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465	.378	.557	.375	.472	.525
31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150	.266	.332	.494	.381	.390
32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466	.159	.112	.641	.227	.439
33	졸업 후 직장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329	.174	.177	.425	.222	.215
34	새로운 취업 정보를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자주 바뀐다.	.616	.215	.082	.660	.236	.548
35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520	.164	-.019	.574	.047	.433
36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	.448	.150	.105	.697	.164	.497
37	진로 결정이 가족의 의견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	.382	.181	.137	.773	.139	.602
38	진로 결정이 주변 사람들(친구, 선·후배)의 의견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	.408	.093	.057	.809	.079	.671
39	현재 선택한 진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397	.323	.368	.275	.585	.452
40	내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40	.236	.086	.134	.501	.289
41	노력하면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12	.333	.351	.334	.542	.402
42	진로를 위한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것이다.	.140	.259	.292	.219	.570	.353
43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다.	.216	.225	.310	.158	.435	.238
교유가		7.416	7.123	6.638	6.357	3.986	
설명변량(%)		37.668	36.179	33.716	32.289	20.246	
누적변량(%)		37.668	73.847	107.563	139.852	160.098	

표 2. 이성교제 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1	요인 2	공통 분산
1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458	.270	.226
2	현재 나의 이성교제 상태에 만족한다.	.548	.238	.304
3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이성 친구와 공유한다.	.677	.280	.462
4	이성 친구와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608	.206	.369
5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401	.202	.143
6	이성 친구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한다.	.624	.262	.394
7	이성 친구에게 나의 개인적인 비밀을 이야기한다.	.601	.201	.361
8	이성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707	.164	.504
9	이성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58	.157	.437
10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597	.217	.357
11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538	.154	.290
12	이성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730	.288	.558
13	이성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702	.232	.504
14	이성친구와 공통된 관심사(취미, 흥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17	.278	.388
15	나와 이성친구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비슷하다.	.633	.245	.402
16	이성친구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583	.213	.340
17	이성교제 사실에 대해 부모님에게 알린다.	.417	.019	.189
18	이성 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한다.	.402	.003	.176
19	이성교제를 하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275	.671	.454
20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두렵다.	.242	.677	.459
21	동성의 친구들보다 이성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더 힘들다.	.246	.636	.407
22	이성의 친구와 함께 있으면 불안하다.	.261	.686	.472
23	이성의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긴장된다.	.208	.626	.392
24	나의 이성교제가 실패로 끝날까 걱정된다.	.160	.639	.411
25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힘들다.	.257	.689	.476
고유가		6.679	4.025	
설명변량(%)		70.491	42.480	
누적변량(%)		70.491	112.971	

성교제 검사 도구의 요인구조는 표 2와 같다.

대인관계 검사 56문항에 대해 상관이 3.0 미만으로 낮은 문항부터 제거하면서 내적 일치도 a 를 살펴본 후 상관이 0.30을 넘지 못한 문항을 제거하고 2차 48문항에 대해, 3차 45문항에 대해 차례로 문항을 제거하였다. 36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a 0.917을 나타냈다. 36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0.89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유치의 값이 1.00 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를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의 개수가 8개로 누적 분산비율은 58.661을 나타냈다. Scree Plot, 고유치, 요인별 문항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요인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 Oblimin 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 검사도구의 요인구조는 표 3과 같다.

표 1에서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이순목, 2003)인 문항이 각 요인별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자는 5개의 요인에 대해 요인 1은 결정 및 현실성, 요인 2는 실천성, 요인 3은 준비성, 요인 4는 독립성, 요인 5는 진로확신이라고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a 는 0.892, 0.897, 0.895, 0.847, 0.735로 나타났다. 진로 검사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결정 및 현실성은 실천성과 0.272, 준비성과 0.181, 독립성과 0.520, 진로 확신과는 0.217을 나타냈으며, 실천성은 준비성과 0.479, 독립성과 0.197, 진로 확신과 0.296을, 준비성은 독립성과 0.161, 진로 확신과 0.283을, 독립성은 진로 확신과 0.233을 나타냈다. 결정 및 현실성

과 독립성, 실천성과 준비성간에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진로 검사의 하위 요인간에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요인 간에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자는 문항 내용을 고려해 5개 요인으로 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표 2에서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이순목, 2003)인 문항이 각 요인별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자는 2개 요인에 대해 요인 1은 만족도 및 친밀성, 요인 2는 이성불안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a 는 0.897, 0.843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하위요인 간 상관결과 두 요인 간에 상관 값이 -0.327을 나타냈다. 하위 요인 간에 상관 값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요인 간에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 검사가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 것이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에서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인 문항이 각 요인별로 선정되었다(이순목, 2003). 그 결과 1번을 제외한 35문항이 요인구조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자는 4개의 요인에 대해 요인 1은 만족도 및 적극성, 요인 2는 대인불안, 요인 3은 친밀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a 는 0.810, 0.806, 0.76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 간 상관은 만족도 및 적극성은 대인불안과 -0.042, 친밀성과는 0.319, 대인불안은 친밀성과 -0.072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간에 독립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검사가 3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 것이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대인관계 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공동 분산
		1	2	3	
1	졸업 후에도 대학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380	.259	.087	.169
2	나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417	.187	.067	.185
3	선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478	.131	.049	.234
4	내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잘 알고 있다.	.431	.088	.071	.191
5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한다.	.540	.299	.052	.310
6	주위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642	.080	.019	.431
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666	.243	.185	.469
8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한다.	.657	.065	.057	.460
9	내 친구들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다.	.645	.154	.160	.437
10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	.634	.056	.120	.436
11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내게 찾아온다.	.558	.170	.013	.312
12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550	.122	.222	.365
13	남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75	.253	.181	.280
14	집단 내에서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604	.364	.004	.399
15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536	.309	.071	.310
16	나의 대인관계에 만족한다.	.597	.508	.059	.479
17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가 좋다는 말을 듣는다.	.641	.343	.129	.460
18	내가 아파서 결석한다면, 그 날의 강의 내용을 알아다 줄 친구가 있다.	.563	.227	.094	.324
19	친구가 힘들 때 먼저 찾아가서 친구를 위로해 준다.	.645	.238	.145	.431
20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02	.430	.125	.433
21	남으로부터 신용 있는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463	.126	.095	.227
22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183	.573	.152	.366
23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를 피한다.	.236	.505	.008	.263
24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집단에 소속하기 힘들다.	.220	.780	.101	.611
25	내가 속한 집단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에게서 스트레스다.	.162	.606	.223	.401
26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쉽게 마음이 상한다.	.136	.512	.201	.319
27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	.147	.438	.101	.197
28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134	.511	.040	.262
29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피한다.	.300	.611	.245	.425
30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53	.481	.081	.245
31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167	.417	.107	.181
32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09	.102	.521	.459
33	내가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	.236	.315	.540	.356
34	교유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464	.272	.681	.655
35	나의 외로움과 우울감에 관하여 마음 놓고 같이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493	.262	.650	.640
36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없다.	.356	.217	.443	.308
	고유가	8.558	4.833	1.283	
	설명변량(%)	65.672	37.091	9.847	
	누적변량(%)	65.672	102.763	112.61	

생활양식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생활양식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진로 검사 연구 모형은 $\chi^2 = 1884.829$, $df = 823$, $p < .001$, χ^2 값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 0.972, CFI = 0.976으로 기준치인 0.90이상으로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Stevens, 1996). 또한 RMSEA = 0.064로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 검사 구조모형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합모델로 결정 및 현실성과 독립성간의 상관 높게 나타나 이 두 요인을 묶어서 4개 요인에 대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1876.256$, $df = 819$, $p < .001$, TLI = 0.965, CFI = 0.964, RMSEA = 0.065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8.573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LI, CFI, RMSEA값 모두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검사의 연구 모형은 $\chi^2 = 1344.600$, $df = 274$, $p < .001$, χ^2 값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 0.957, CFI = 0.955로 기준치인 0.90이상으로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Stevens, 1996). 또한 RMSEA = 0.061로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교제 구조모형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합모델로 요인 1을 두 개로 나누어 3요인 모델에 대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1349.923$, $df = 275$, $p < .001$, TLI = 0.943, CFI = .954, RMSEA = .070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5.3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LI, CFI,

RMSEA값 모두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검사의 연구 모형은 $\chi^2 = 1199.856$, $df = 552$, $p < .001$, χ^2 값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 0.976, CFI = 0.979로 기준치인 0.90이상으로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Stevens, 1996). 또한 RMSEA = 0.065로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인관계 검사 구조모형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합모델로 1요인과 3요인을 합하여 2개 요인에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1198.526$, $df = 551$, $p < .001$, TLI = 0.974, CFI = 0.974, RMSEA = 0.066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1.33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LI, CFI, RMSEA값 모두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2주 간격 진로 검사의 재검-재검사 신뢰도는 전체가 0.832, 진로결정 및 정보 0.913, 실천성 0.904, 준비성 0.913, 독립성 0.875, 진로 확신 0.751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검사의 2주 간격 재검-재검사 신뢰도는 전체가 0.824, 만족도 및 친밀성 0.901, 이성불안 0.93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검사의 2주 간격 재검-재검사 신뢰도는 전체가 0.874, 만족도 및 적극성 0.913, 대인불안 0.852, 친밀성 0.701로 나타났다. 0.70이상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생활양식 검사와 BASIS-A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의 타당

표 4. 생활양식과 BASIS-A와의 상관

생활양식	BASIS -A	소속- 사회적 관심	전진 하기	주도권 잡기	기쁘게 하기	신중 하기	거침	관심 받기	연결 하기	완벽함 추구	부드 러움	합
결정 및 현실성	.172*	.123	-.008	.194**	-.302***	-.275***	-.046	.127	.284***	.279***	.116	
실천성	.262***	.005	.106	.327***	-.207**	-.309***	.137*	.288***	.285***	.203**	.269***	
준비성	.241***	-.021	.114	.309***	-.182**	-.293***	.137*	.288***	.285***	.203**	.269***	
독립성	.171*	.152*	-.013	.163*	-.326***	-.294***	-.060	.085	.288***	.296***	.098	
진로확신	.251***	.026	.077	.326***	-.210**	-.293***	.069	.255***	.344***	.244***	.267***	
진로합	.258***	.068	.060	.310***	-.294***	-.350***	.057	.240***	.344***	.283***	.232***	
만족도 및 친밀성	.103	-.139*	.233***	.071	.193**	.049	.254***	.085	.032	-.056	.260***	
이성불안	-.066	-.004	-.043	-.026	-.021	.032	-.144*	-.084	-.019	-.028	-.101	
이성합	.082	-.158*	.240***	.068	.208**	.074	.211**	.052	.027	-.078	.242***	
만족도 및 적극성	.424***	-.028	.122	.279***	-.126	-.283***	.051	.265***	.266***	.317***	.342***	
대인불안	.406***	.112	.224**	.206**	-.263***	-.293***	-.039	.089	.353***	.369***	.340***	
친밀성	.340***	.015	.048	.245***	-.197**	-.257***	-.026	.221***	.232***	.301***	.231***	
대인합	.460***	.008	.162*	.288***	-.190**	-.318***	.024	.241***	.323***	.371***	.370***	

주. * $p < .05$, ** $p < .01$, *** $p < .001$

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와 BASIS-A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생활양식 하위 요인과 BASIS-A의 상관 결과는 표 4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진로의 하위요인들은 BASIS-A의 소속-사회적 관심,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 거침, 완벽주의, 부드러움이, 실천성과 소속-사회적 관심,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 거침, 연결하기, 완벽주의, 부드러움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성교제의 하위 요인들은 BASIS-A의 전진하기, 주도권 잡기, 신중하기, 관심받기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들은 BASIS-A의 소속-사회적 관심,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 거침, 완벽주의, 부드러움이, 실천성과 소속-사회적 관심, 기쁘

게 하기, 신중하기, 거침, 연결하기, 완벽주의, 부드러움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활양식 척도 하위요인들의 총합은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에서 모두 BASIS-A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BASIS-A에서 전진하기와 관심받기 두 요인은 생활양식의 진로, 이성교제 요인들과 상관이 낮으나 대인관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두 요인이 대인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성교제와 BASIS-A의 하위 요인간에 상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BASIS-A가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인관계와 이성교제 요인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생활양식의 주요한 구성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BASIS-A의 다른 요인들과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는 것은 본 연구 도구가 생활양식을 잘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제작하고, 검사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의 인생과제가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생활양식, 적응적 생활양식, 부적응적 생활양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목표지향이 생활양식의 구성요소, 적응적 생활양식, 부적응적 생활양식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이란 인생의 기본적인 지향을 나타내며 인생과제가 생활양식의 요인이라는 아들러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생활양식, 적응·부적응적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인 인생과제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이 주요한 인생과제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주요한 인생과제는 아들러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기존의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구성 요

인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ern, 1982; Kern, Wheeler, Curlette, 1993).

두 번째, 각각의 인생과제와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미 제작된 검사도구에서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여 검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검사도구 목적에 적합한 가장 신뢰로운 문항을 구하기 위해 3차례의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모두 104문항이 선정되었다. 다른 생활양식 검사도구에 비해 문항이 많으나 세 구성요소와 각각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문항분석 과정, 요인분석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 검사는 내적 일치도 a 가 0.735에서 0.897, 이성교제 검사는 내적 일치도 a 가 0.869에서 0.903, 대인관계 검사는 내적 일치도 a 가 0.764에서 0.810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SIS-A의 원척도 신뢰도가 0.82에서 0.87(Kern, Wheeler, Curlette, 1993)과 비슷하며 번안된 검사의 신뢰도 0.60에서 0.79(정민, 20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검사도구의 높은 신뢰도는 검사도구가 일관성이 높고 신뢰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진로 검사가 0.751에서 0.913으로, 이성교제 검사가, 0.901에서 0.935로, 대인관계 검사가 0.701에서 0.913으로 나타났다. 2주 간격에 의한 척도의 안정성이 높고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의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75에서 0.90(Kern, Wheeler, Curlette, 1993)과 비슷한 결과이다. 각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

인하였다. 진로 검사의 경우 하위요인 중 결정 및 현실성과 독립성간에 상관이 0.52로 0.50이상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5개 요인구조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였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가 0.972, CFI가 0.976으로 나타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검사, 이성교제 검사, 대인관계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값이 각각 0.90이상으로 나타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해주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와 기존 생활양식 척도인 BASIS-A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기존 생활양식 척도와 BASIS-A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생활양식으로 구성된 하위 세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진로 검사의 경우, 결정 및 현실성, 실천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확신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아들러가 주장했던 직업 결정,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관심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 경우 아이의 잘못된 생활양식에 기인하게 된다는 아들러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노안영 외, 2001). 이성교제 검사는 만족도 및 친밀성, 이성 불안 2개 요인이 구성되었다. 아들러는 건강한 사랑과 결혼에 대해 상호관심의 동등성, 상호협력의 태도, 부모님의 결혼생활, 성역할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러는 아동이 이성 부모와의 불일치가 매우 크다면 이성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Dreikurs, 1953). 이성교제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 부모님의 결혼생활과 성역할 수용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성에 대한 상호협력의 태도와 이성에 대한 불안은 아들러가 주장했던 이

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인관계 검사는 만족도 및 적극성, 대인불안, 친밀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아들러는 생활양식 중 특히 사회적 관심을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협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생활양식 척도들은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검사지가 개발되었다. BASIS-A는 대인관계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대인관계 검사는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정서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인관계 검사 하위요인들은 대인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우정, 협력이 중요하며(만족도 및 적극성, 친밀성) 과잉보호된 아이는 타인과 잘 접촉할 수 없다(대인불안)는 아들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생활양식은 Mosak(1971)의 획득형, 추동형 등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행동유형과 관련된 요인이나 Kern(1982), Kern, Wheeler, Curlette (1993)의 전진하기, 주도권잡기 등 대인관계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아들러의 생활양식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세 개의 주요한 인생과제를 도출해 냈으며 각각의 인생과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생활양식 척도의 내용을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로 확장시켰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들 또한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통합·재창출하여 그 하위 요인들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아들러 생활양식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있다. 아들러가 주장했던 생활양식

과 인생과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론을 실제 아틀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장면에서 활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생활양식을 보이는 학생들을 분류하여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력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틀러 이론을 이론적·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로 상담자를 도와줄 수 있다. 셋째, 한국인에 적합한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개발에 있다. 본 검사도구는 외국의 생활양식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했을 때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문제점을 제거·보완하고 급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재 생각과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신뢰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를 통해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세 가지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세 영역 각각에 대해서도 다시 5개에서 2개 정도의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부적응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세 영역은 모두 우울, 부적응 등과 상관이 높다. 따라서 세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여 세밀하게 문제

에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봄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검사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적 편파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다양한 많은 문항이 여러 요인에 중복되어 있어 독립적인 요인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진로 문항은 여러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이 많이 있어 다소 복잡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간명한 요인구조를 찾기 위해, 또는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자료를 통한 요인분석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내용이 중복된 문항들이 있다는 점이다. 처음 많은 문항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거짓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비슷한 문항을 나누어서 배치했으나 양적 통계처리 과정에서 이 문항들이 신뢰로운 문항으로 남게 되었다. 비슷한 문항을 따로 배치해서 내담자의 일관된 대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검사도구의 문항을 늘려 검사자의 피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으로는 첫째,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생활양식 검사 및 적응과 부적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검사도구들과의 상관을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검사도구는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양식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인생과제 이외에 초기회상, 출생순위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통해 적응과 부적응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준거는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적응과 부적응을 변별하는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검사 도구를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척도가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에 척도에 대한 임상 자료가 아직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많은 경험적 자료가 축적된다면 생활양식 검사도구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형일, 노승미 (2004). 2004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35, 1-45.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계현 (1995). *거꾸로 배우는 사랑과 결혼*. 서울: 김영사.
- 김계현,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 311-333.
- 김기정, 이정희 (1999). 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7-37.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동희 (2002).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 20-43.
- 김은정, 권정혜 (198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39-153.
- 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 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53-175.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 이종환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혁곤 (1983).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3, 117-144. 순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남재수, 윤정륜 (1974). *이성관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지도연구*, 2, 3-31. 안동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종 (2001). *애들러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노안영, 오익수 (2000). *생활양식에 근거한 애들러 상담접근방식의 이해*. *학생생활연구*, 32, 1-24.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노안영, 정민 (2003). *대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상담학연구*, 4, 5-18.
- 박경순 (1996). *중학생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은주 (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8, 64-76.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 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2003).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 학사.
- 이정우, 김명자, 계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호 (1992). 대학생활의 설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형득 (1983).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 출판부
- 정민 (2004). 대학생의 게임중독 특성 분석. 대학생활연구, 6, 3-20. 동신대학교 학생활동 연구소.
- 정민, 노안영 (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375-387.
- 정현숙 (2004). “결혼전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91-101.
- 조현춘, 조현재 (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차승희 (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효과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미 (1984).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종철, 이기학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한국진로교육학회, 8, 219-255.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대인관계문제 검사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1, 923-940.
- 황경옥 (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reikurs, R. (1953). *Fundamentals of Adlerian psychology*.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vighurst, R. T. (1961).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1, 8-13.
- Hawes, E. C., & Blanchard, M. L. (1993). Life tasks as an assessment technique in marital counseling.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49, 306-317.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64.
- Kern, M. R. (1982). *Life style scale*. Coral Springs, FL: CMTI Press.
- Kern, M. R., Wheeler, M. S., & Curlette, L. W. (1993). *BASIS-A inventory interpretive manual*. NC: TRT Associates, Inc.

- Loyd, S. A., & G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2, 755-773.
- Lunneborg, P. W. (1978). Sex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99-305.
- Mosak, H. H. (1971). *Techniques for behavior change: Applications of Adlerian theor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Powers, L. Robert, & Griffith, J. (1987). *Understanding life-style*. The Americas institute of Adlerian studies, I: Chicago. Illinois.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1995). A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Assessment*, 2, 53-63.
- Stevens, J. (1993).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heeler, M. S. (1989).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mparison of typologies.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5, 335-353.
- Wheeler, M. S., Kern, R. M., & Curlette, W. L. (1986). Factor analytical scales designed to measure Adlerian life style themes.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2, 1-16.

원고접수일 : 2006. 2. 9

수정원고접수일 : 2006. 6. 30

게재결정일 : 2006. 8. 11



Development of a College Students' Lifestyle Scale Focusing on Life Tasks

Min Jeo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ifestyle scale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items from previously developed scales, the authors identified three major factors in college students' lifestyle: career, dat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items for the scale were finalized by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career factor was composed of five subfactors (decision and reality, practice, preparation, independence, and career conviction). The dating factor consisted of two subfactors (satisfaction and intimacy, and anxiety) and the interpersonal scale included three subfactors (satisfaction and proactivity, anxiety, and intimacy). The factors for the scale were found to be stable and reliabl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gard to developing a lifestyle scale tailored to the Korean culture.

Key words : the lifestyle scale, life task, career, da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